

문화

10월, 광주 연극계에 굵직한 두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두 작품 모두 광주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작업이라 기대감이 높다. 진달래 피네의 '몽연'은 연극으로는 드물게 제작비가 1억원에 이르고, (사)광주연극배우협회가 무대에 올리는 '허삼관 매할기'는 외부 연출가와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으로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지독한 멜로 & 눈물 속 위트



1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극단 진달래 피네의 '몽연' 연습현장.

10월 광주, 연극에 빠지다

- ▲진달래 피네-‘몽연’
- 8~10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몽연’ 연습 현장. 연출을 맡은 최영몽연
- 문진위 1억원 공모 당선작
- 광주대표문화상품 기획
- 8~10일 문예회관

▲진달래 피네-‘몽연’ “지금 사랑하는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너는 그를 그리워하는 거야. 시선을 더 위쪽으로 향해야지.”

지난달 말, 늦은밤이지만 송원대 엔터테인먼트학과 연습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8~10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몽연’ 연습 현장. 연출을 맡은 최영몽연

특히 열악한 제작비 탓에 광주 연극의 난제로 꼽혔던 무대세트와 조명, 의상 제작 등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 ‘몽연’이 어떤 완성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루 사이공’, ‘오아시스세탁소 습격 사건’의 김정숙 씨 희극이다.

는 조선대 극회 출신으로 광주와도 인연이 있다. 대본 리딩 등을 통해 캐스팅을 진행하고 지난달부터 지역 배우들과 작업중인 강씨는 2003년판을 한단계 ‘버전업’ 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지역 배우들에게는 외부 연출가와의 호흡으로 ‘새로운 연극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허삼관 역의 김상오, 허극단역의 김지영씨를 비롯, 정은희·이기인·정경아·이담금·양정민씨 등 20여명이 출연한다.

한편 공연예술제에서는 사다리연구소의 ‘휴먼 코미디’, ‘뒤편’의 ‘노래하듯이 헬리’ 등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은 연극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두 작품 모두 ‘연극촌’(cafe.daum.net/drama2003)에서 3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허삼관매할기’는 공연예술제 홈페이지(www.gipaf.org)에서도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47)씨는 아내역의 김유진씨 동작을 수정하고, 대화를 나누며 연습을 진행시켰다. 코러스로 참여하는 배우들은 장단을 치고, 춤을 추느라 쉴 틈이 없었다.

남편을 떠나 보낸 ‘아내’는 매일 꿈속에서 ‘남편’을 만나 울부짖고, 애달퍼하고, 기빠하고, 좌절한다. 지독한 사랑에 온 마음을 내어놓은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번 무대는 ‘몽연’ 초연 때 참여했고, ‘서안화차’, ‘검정고무신’ 등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윤영매씨가 오랜만에 복귀하는 작

품이기도 하다. 아내 역은 살레시오여고·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김유진씨가 맡았다. 그밖에 진달래피네 소속 배우등 30여명이 출연한다.

지난 2004년 광주연극제 최우수상을 받았던 ‘몽연’은 ‘진한 멜로’작품이다. ‘몽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진위 공모를 통한 ‘지역협력형 사업’ 당선작으로 1억원이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극단 지원금이 최대 3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액수다. ‘광주대표문화상품’을 만든다는 기획 아래 진행되고 있어 극단측의 어깨도 무겁다.

▲광주연극배우협회-‘허삼관매할기’

중국 소설가 위화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피를 판 돈으로 인생의 위기를 넘기는 허삼관의 슬픈 사연을 오히려 유쾌하게 뒤집었다. 25~26일 유·스퀘어 문화관.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연출가 강대홍(48)씨다. 2003년 강씨가 연출했던 ‘허삼관매할기’는 그해 평론가협회 올해의 우수 연극상,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극협회 올해의 베스트 7, 히서연극상 등을 휩쓸며 찬사를 받았었다.

극단 ‘미추’의 상임연출을 맡고 있는 강씨

이창훈·박문경·신수경 호흡 피아노 트리오의 밤

6일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연주자들이 피아노 트리오로 뭉쳤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창훈,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박문경,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신수경씨가 호흡을 맞춰 가을밤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한다.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피아노가 포함된 실내악곡 중 처음으로 4악장 구성으로 작곡된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1의 3번’, 당초 피아노와 클라리넷 배선을 위한 트리오곡으로 작곡된 곡으로 작곡가가 당시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글린카의 ‘트리오 비극적’이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장조’가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모스 오즈>

올 노벨문학상

한림원의 선택은?

아모스 오즈 유력 후보에 고은 씨 물망



<고은>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벨위원회는 5일 의학·생리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등의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가장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노벨문학상의 경우 오는 8일 발표될 것이라고 스웨덴 한림원이 밝혔다.

올해 노벨문학상이 과연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지, 숙원인 한국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가능할지 관심이이다.

◇베팅사이트 유력 후보는 아모스 오즈=오르한 파묵 등의 수상을 적중시켜왔던 온라인 베팅사이트 레드브록스는 올해 유력 후보로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를 꼽고 있다.

아모스 오즈는 지난해에도 발표 직전 실제 수상자인 르프레지오가 치고 올라

오기 전까지 1위를 달렸던 유력 후보였다.

국내에도 ‘여자를 안다는 것’, ‘나의 미카엘’, ‘물결을 스치며 바람을 스치며’ 등 여러 편의 작품이 소개돼 있다.

아모스 오즈에 이어서는 알제리의 아시야 제바르와 미국의 조이스 캐럴 오즈, 두 여성 소설가가 나란히 6대 1의 배당률을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미국 작가 필립 로스가 8대 1,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가 9대 1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타부치와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스페인 시인 루이스 고이티솔로, 미국의 토머스 핀천은 모두 10대 1로 뒤를 잇고 있다.

◇국내 작가 노벨상 수상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해마다 수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시인은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레드브록스에 따르면 고은 시인의 배당률은 13대 1로 스웨덴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로메르와 함께 나란히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시인 수상자가 없었던 데다 2000년 중국계 프랑스 작가 가오싱젠이 수상한 이후 아시아 작가들의 수상도 없었다는 점에서 고은 시인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고은 시인 외에 소설가 황석영 씨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와 트클레지오로부터 수권된 작가로 언급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창훈·박문경·신수경 호흡 피아노 트리오의 밤

6일 유·스퀘어 문화관

이창훈 씨 | 박문경 씨 | 신수경 씨

스트 신수경씨가 호흡을 맞춰 가을밤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한다.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피아노가 포함된 실내악곡 중 처음으로 4악장 구성으로 작곡된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1의 3번’, 당초 피아노와 클라리넷 배선을 위한 트리오곡으로 작곡된 곡으로 작곡가가 당시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글린카의 ‘트리오 비극적’이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장조’가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산용전들노래 정기발표회

모심기에서 수확까지 5일 문예회관 소극장

지산용전들노래 정기발표회가 5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판들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장원질 등 모심기에서 수확까지 5개 과정을 흥겹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선보인다.

지산용전들소리보존회 대표이자 무형문화재 17호 우도농악 보유자인 김동원씨와 회원 40여명이 참여한다.

지산용전들노래는 광주시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불려지던 흥겨운 노동요로 60년대 말까지 구전되어오다

맥이 끊겼던 것을 2년여의 고증을 통해 1999년에 재현했으며 무드리극과 경연대회 대상, 전국민속예술축제 금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510-12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한도시상 영화시상 www.joybo.com/1588-7841

고려시상 고려극장 www.hamcinema.co.kr/1588-9120

색깔있는 영화시상 www.cinuso.kr/1544-0070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제일 시네마
1관 내사랑 내결에 (124)	1관 국가대표 (124)	1관 애자 (154)	1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1관 내사랑 내결에 (124)
2관 씨로게이트 (154)	2관 애자 (15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2관 해운대 (124)	2관 씨로게이트 (154)	2관 게이머 (184)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국가대표 (124)	3관 내사랑 내결에 (124)	3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4관 페임 (12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페임 (124)	4관 애자 (15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관 내사랑 내결에 (124)	5관 페임 (124)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관 페임 (124) /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5관 페임 (124)
6관 애자 (154)	6관 게이머 (184)	6관 게이머 (184)	6관 게이머 (184)	6관 국가대표 (124) / 애자 (154)
7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8관 게이머 (184)	8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8관 내사랑 내결에 (124)		
9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9관 씨로게이트 (154)	9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10관 내사랑 내결에 (124)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ARS 전화예매 227-1960